

No. 49

작은 꿈과 소망을 이루어 가는



성프란치스코의 집

2014년 4~6월 49호 소식지



소풍

이혜정 자원개발

소풍 가는 날, 어머니는 새벽부터 분주히 도시락을 준비하십니다.
평상시 요란한 알람소리에 꿈쩍도 않지만 소풍 날만큼은 설렘을 가득 안고 스스로 일어납니다.
바쁘게 도시락을 준비하시던 어머니가 김밥 꼭지 하나라도 입에 넣어주면 그 맛은 세상 어느 음식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일품이지요.
아마도 소풍이라는 맛있는 양념이 김밥의 맛을 더욱 살리지 않았을까요~

항상 반복되는 일상 속에 소풍이라는 이벤트는 지루한 일상의 활력소가 됩니다.
성프란치스코의집을 찾아주시는 후원자, 자원봉사자들 분들도 저희 집을 방문하는 날이 소풍처럼 설레고 기다려지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ontents

- 02 목차
- 03 여는 글_ 공태임 생활지도원
- 05 우리들의 이야기 I_ 이종호 생활지도원
- 06 우리들의 이야기 II_ 최치현 이용자
- 07 우리들의 이야기 III_ 시즌3 자립여행
- 08 우리 사는 이야기
- 10 당신이 머무는 자리

후원회 미사 안내

성프란치스코의집 또 하나의 가족인 후원자·자원봉사자 여러분을 위한 후원회 미사가 **매월 둘째 주(일요일 기준) 목요일에** 봉헌됩니다.

- ◎ 날 짜: 7월 17일 / 8월 14일 / 9월 18일
- ◎ 시 간: 19시 30분
- ◎ 장 소: 대연성당

행복한 웃음소리 풍성했던 소풍길

공태임 생활지도원



때 이른 더위에 재활원에만 있기 갑갑해 얼마전 개원한 시민공원으로 부랴부랴 출발!!
이왕 나서는 길, 돛자리와 간식도 준비해서 소풍기분을 내본다. 세월호 사건으로 봄 소풍이 취소되어 아쉬움이 컸던 탓인지, 시민공원으로 가는 내내 차 안은 흥얼거리는 노래 소리, 재잘거리는 이야기 소리로 즐거움과 기대가 가득하다.



설레임과 즐거움을 가득안고 시민공원 도착!
생각했던 것보다 공원의 규모가 크고 넓어 어디서부터 가야할지 난감하기만 한데, 아이들은 "우와 좋다, 크다"라는 말을 연발하며 이곳 저곳 둘러보며 마냥 신기해 한다. 안내판 앞으로 가 대충 위치를 파악하고 발걸음을 옮긴다.
아직 조성되지 얼마되지 않아 울창한 나무숲과 그들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없이 더울 터인데도 조형물과 놀이기구, 볼거리가 많아서인지 신기함에 여기저기 둘러보느라 힘든 줄도 모르고 잘 걷는다. 그러다 어린이 도서관앞에 자리한 뽀로로 캐릭터를 보고 "우와 뽀로로다"라며 큰 소리와 함께 모두 신나서 달려간다. 그리고는 이리저리 만지고 포즈를 취하느라 모습이 천진난만 그 자체다.

한참을 뽀로로와 함께 놀다 바로 앞에 자리한 체험공방들을 둘러보더니 직접 만들어 보자며 팔을 이끈다. 금속공예, 목공예 등, 여러 공방을 둘러보다 알록달록 예쁜 인형과 코사지들이 비치된 섬유공방을 짚하고, 모두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에코백을 만들기로 결정!! 활동 방법을 설명해주는 선생님의 말씀을 모두가 초집중하여 귀담아 듣고는 각자가 원하는 문양의 기본 도안을 고른 다음에 각자만의 자유로움과 창의력을 발휘!! 멋진 작품의 세계로 빠져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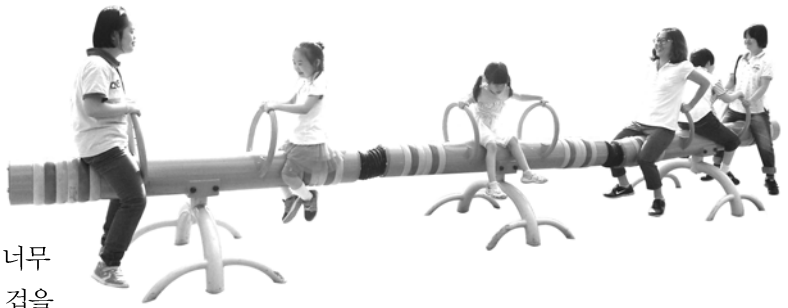


만언니 은진씨는 미술치료 활동에서의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한 실력을 발휘, 피카소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그림솜씨를 선보이고, 처음에 망설이던 영애도 평소 휴대폰을 꾸미던 실력으로 다양한 종류의 팬을 이용하여 멋진 도안을 완성하고, 옆에서 언니가 하는 것을 살짝 컨닝하던 인홍이도 이내 교사의 도움을 뿌리치고 혼자서 척척!! 모두가 진지한 예술가의 모드다. ^^

그리고 오리고 붙이고 다림질하고 예술가의 혼을 불어 넣어 작품 완성!! 모두가 완성한 에코백을 메고는 한껏 모델 흉내를 내보며 서로의 것을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다. 스스로가 만든 것이라 기쁨과 성취감이 큰 지, 내일 학교에 갈 때 메고 가서 자랑하고 싶단다.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이면서 즐거운 시간이 된 것 같아 보는 내내 흐뭇....





공방을 나와 놀이터가 있는 곳으로 고고 썰!! 에고..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은데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라 겁을 먹고 엄두를 내지 않는다. 할 수 없이 이용하기에 편한 놀이시설을 찾다 마치 뱀처럼 생긴 기다란 모양의 시소를 발견!! 자리를 잡고 올라탄다.

이전에 보던 시소랑 달리 상 하 좌 우로 움직이는 것이 신기하다. 그 신기함에 아이들의 입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얼굴에도 함박 미소가 가득하다. 한참을 신나게 시소와 또 다른 놀이기구를 이용, 실 새 없이 움직이더니 배가 고프단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놀았으니 허기가 질만도 하다.



챙겨온 음료수와 간식에 더하여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하여 근처의 이마트에 들러 치킨을 산 다음, 그늘에 돛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는다. 신나고 즐겁게 놀고 난 다음에 먹는 음식은 그야말로 꿀맛이다... 욕심을 내기도 하다가 또 다정히 나누어먹기도 하면서 소풍 나온 기분을 제대로 만끽!!

그렇게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사이에 어느새 해가 넘어간다.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고 귀가를 위해 차로 이동하던 중, 들리는 음악 소리! 소리를 따라 가보니 아이들이 좋아하는 EXO의 노래 소리에 맞추어 분수가 춤을 춘다.

"와 신기해요." "멋져요." "신나요"라고 감탄사가 연발한다. 때마침 분수의 물살이 햇살에 비추어 무지개를 연출해서 보는 즐거움을 더한다. 신기한 광경에 아이들의 환호성이 더 커졌다. 아이들이 들뜬 모습에 좀 더 있고 싶었지만 뜻하지 않았던 공연에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아쉬워하는 마음을 다독이고 차에 탑승....

뜻하지 않은 바깥나들이와 체험활동, 그리고 놀이에 대한 여운이 많이 남아서인지 "너무 재미있었어요." "여름방학 때 또 와요." "다음에는 물놀이도 하고 싶어요." 라며 각자의 바람을 이야기하느라 출발할 때만큼이나 재잘거리는 소리가 가득하다. 그렇게 아이들의 기대와 흥겨움을 가득 실어 즐거운 소풍을 마무리하고 재활원으로 향한다.



계획되지 않았던 나들이였지만 시종 내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즐거운 하루였다.

웃을 소, 풍성할 풍.... 말 그대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풍성했던 소풍~~~

소소한 일상에서 얻는 기쁨으로 가득한 행복한 시간이었다. 다음번에 정말 김밥도 싸고 통닭도 튀기고 과일까지 풍성한 도시락도 준비하고 여벌옷도 챙겨 물놀이도 즐기고, 오늘 해 보지 못했던 공방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체험해보면서 정말 소풍가는 기분 제대로 내 보아야겠다. 오늘보다 더욱 더 풍성한 웃음소리와 미소가 가득한 소중한 즐거운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도록 여름방학이 어서 왔으면 좋겠다.

“이제 1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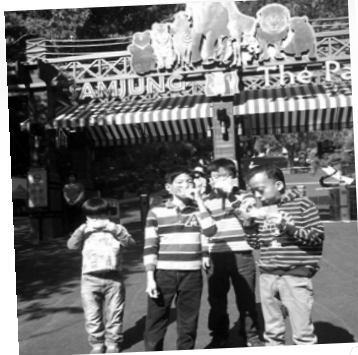
이종호 생활지도원

지난 3월에 입사하여 첫 출근한 것이 었그제 같이 느껴지는데 벌써 3개월이라는 짧지만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성프란치스코의집이 부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 손꼽히는 곳이라는 말을 듣고 이 곳에 입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는데 그 목표를 달성했다는 마음에 내심 뿌듯하기도 합니다. 처음 출근한 날 새 출발을 한다는 기대와 함께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용자들이 입구에서부터 그리고 방에서 뛰어나와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이주는 모습에 두려움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성프란치스코의 집 일원으로써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이젠 이용자 모두가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대학 시절 진로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던 중 장애인복지 쪽으로 진로를 잡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장애인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었던 저는 장애인은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만 여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부끄러운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룹홈 체험 프로그램이 끝난 후 방 청소를 하고 있는 저에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이용자 중 한 명이 슬그머니 다가와 시무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친구들이 저 보고 자꾸 지적장애2급이라고 놀려요, 지적장애 2급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말 한 마디였지만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무지함과 낮은 수준의 인식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평소 아무 걱정 없이 해맑게 웃던 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무언가 해줄 수 있다면, 그로 인해서 조금 더 변화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거기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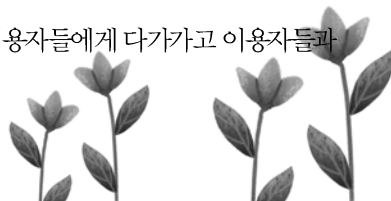




얼마 전 초음에 있는 삼정 더 파크 동물원으로 나들이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점심식사로 햄버거세트를 주문해서 먹었는데 한 이용자가 제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으니 내심 걱정이 됐나봅니다. 연신 "삼촌은 왜 안 먹어요?"라고 물으며 자신의 햄버거와 감자튀김, 콜라를 건내며 "삼촌도 드세요."라고 말하며 저를 따뜻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해맑게 웃으며 저에게 팔짱을 끼더니 "삼촌이 좋아요"라고 말하며 진한(?) 애정공세까지 펼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마음을 열지 않고 늘 거리를 두던 녀석이 불과 그 3시간 사이에 마음을 열고

다가와주는 것을 보니 진심은 통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왠지 모르게 가슴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성프란치스코의집 가족으로써 한 걸음씩 더 이용자들에게 다가가고 이용자들과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생활지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II

성모님께 올리는 편지



최치현 이용자

안녕하세요? 저는 성프란치스코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최치현 이라고 합니다.

기분 좋은 따뜻한 바람이 훑날리는 5월 저는 성모님께 지난 1년간 잘 계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는 1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하늘방에서는 한 달에 한번 캠핑장에 가서 요리를 직접해먹기도 하며 관광지 관람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체험도 하며 여가 생활을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자립심이 길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애직업재활원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하는 일은 복사용지 납품과 절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도 많지만 주저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새집이 지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척 기대가 됩니다. 성모님의 보살핌 아래에 아무 탈 없이 새집이 완공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성프란치스코의 집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성모님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시즌3

자립여행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드디어 기다렸던 하늘방의 "시즌3 자립여행프로그램"이 시작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캠핑을 즐기는 분들이 300만에 달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캠핑과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저희의 여행활동모습들을 잘 지켜봐주세요~ 지금부터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었던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팔로팔로 팔로미~~!



4월의 여행지는 경남 합천 군에 위치한 황강레포츠공원캠핑장을 이용했는데 이곳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는 황강의 강물이 흐르고 있어 경치가 좋았습니다.

이날 날씨가 흐려 다음날 새벽과 아침에는 비가 내렸지만 다행히 금방 개어 활동에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합천영상테마파크와 합천댐을 관광하였는데 가장 인기가 좋았던 곳은 영상테마파크의 각시탈의 촬영지입니다. 멋진 포즈로 또 한장의 추억을 남겼습니다^^



5월의 여행지는 경남 고성 군에 위치한 상족암 캠핑장입니다. 이곳은 작년에 와봤던 곳이기도 하지만 위치와 시설이 좋아 한번 더 찾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지난번과는 달리 햇빛이 너무 따가워 숲속 나무 그늘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였습니다.

모두들 텐트 치는 솜씨가 이제 달인의 수준이네요~^^ 바닷가의 파도 소리와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한 여행이었습니다.



6월의 여행지는 전남 보성 군에 위치한 오봉산삼골캠핑장입니다. 당일 날씨가 흐려 비가 올 것 같아 걱정이었는데 기우에 그치지 않고 정말 비가 많이 와버렸네요 ㅠ_ㅠ..

캠핑장을 가기 전 대한다원의 녹차밭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렸지만 우리들의 자립여행의 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정상에 오르기 까지 힘들어 했던 이용자분도 있었지만 조금씩 힘을 내어 정상에 올랐을 때에는 모두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어려운 환경에서 낙오하지 않고 목표에 도달하는 성취감과 기쁨을 몸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여행은 앞으로도 계속 되니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우리 사는 이야기

부산환경공단 홍보영상 상영 (4월 3일)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에서 본원을 방문하여 부산환경공단 홍보영상 상영과 함께 후원금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수 관로처리, 폐기물처리, 위생처리, 신재생에너지 등 다소 어려운 환경에 대한 내용을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용자들이 집중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은 시간이었는데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올바른 정보 습득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이날 나들이 행사 (5월 1일)

5월 가정의 달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들이 참 많죠~^^

그 중에서도 어린이날은 저희 가족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인데요~ 어린이날을 맞이한 이용자들이 휴메트로 청솔회 자원봉사팀과 함께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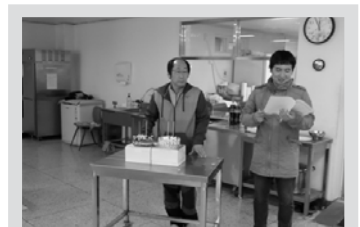
나들이를 하기에 더 없이 화창한 날씨였는데요~^^ 평화공원 꽃 축제를 관람하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낸 후, 중화요리 집에서 맛있는 자장면과 탕수육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휴메트로 청솔회 자원봉사팀 정말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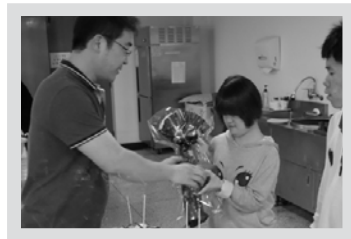
어버이날 행사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원장님과 선생님들에게 그동안 표현하지 못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원장님에게 달아드리는 모습에서 감사함이 묻어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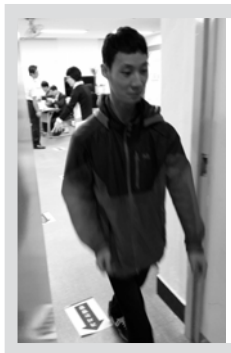
성년의 날 (5월 19일)

김O진, 김O운, 황O습 이용자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식에 빠질 수 없는 장미꽃과 선물을 받았습니니다. 성인이 된다는건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만큼이나 그에 따른 책임감도 커진다는 것인데요, 저희 가족들도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6.4 지방선거 참여 (6월 4일)

세월호 사건으로 어느 때 보다 관심이 높았던 6.4 지방선거!! 지난 대통령선거와는 달리 구의원부터 시장까지 방법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공약집을 살펴보면서 누가 어디에 출마하는지도 알아보고, 또 투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 덕분에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였습니다. 저희 이용자들이 행사한 소중한 한 표가 이용자들의 권리를 위해 쓰여지길 바랍니다.



인권실태 전수조사 (5월 23일)

최근 잇따른 장애인 인권침해와 관련한 사건으로 인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아래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종사자와 이용자들의 심층면담과 함께 인권침해 사례, 장애인 금전관리, 인권지킴이단 구성실태,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실시여부, 기타 생활실태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용자들의 권리를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해주신 생활실 선생님들과 직원 분들의 노고로, 다행히 저희 원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일 없이 무사히 인권실태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몇몇 시설의 잘못으로 전체가 호도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사기가 저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 이용자들이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을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장애인이 살기 좋은,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머무는자리

(2014년 4월 1일 ~ 6월 30일)

자원봉사

가사지원 - 목록

김병국 박재홍 라온공동체
대한적십자사보건의사회
부산30대의쉼터 동아대홍보대사예그리나

가사지원 - 세탁

강원순 김미라 김미자 김랑 김민정 김선미 김영신 김정숙
서영숙 성꼭지 친구진 안정희 양혜진 이강연 이명열
이명화 이호숙 임국자 임옥희 채정숙 허경희
겸손하신어머니(우동성당) 능하신정녀
영광의성모(남천성당) 모든성인의모후(광안성당)
성실하신어머니(연산성당) 희망의모후
위로자의모후(좌동성당) 부산여성회관수선팀

가사지원 - 주방(조리, 설거지)

김정옥 김현석 노영임 박영자 송채근 오진선
이 나 이다은 이명숙 윤성자 장명숙 전정옥 황정애

노력봉사

백정희 지안순 허석비 국군지휘통신사령부55통신지원대대
남부소방서의용전대 내성로타렉트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은행대연동지점 솔잎
여러이함께 즐거움의원천(우동성당) 청소년1,2팀
신세계면세점노동조합 해군작전사령부헌병전대
해군7기동전단 휴메트로청솔회 평화지킴이단

학습지원

김유리나 김지유 김혜민 문경자 박근혜 박재홍 박현희
손은선 신지은 신현진 손서연 이승재 이정민 이지수
이수빈 임혜란 장윤경 표혜정

학습프로그램 및 여가생활지원

정맹룡도예공방 경성대학교물리치료과
부경대학교민심사랑

단기봉사

양지훈

후원

개인후원

강무수 강승원 강영숙 강정인 강지연
강홍철 고남우 고영실 고진수 고평년
공숙희 공주경 광영호 광일수 구희원
권오봉 금민수 김경찬 김경량 김정선 김경아

김경훈 김국선 김기순 김남석 김동준 김명희 김미리암 김미향
김민정 김보순 김봉균 김선미 김선환 김성근 김숙희 김승근
김시교 김시윤 김양경 김양환 김양희 김영일 김영조 김영화
김유진 김윤희 김윤성 김은숙 김은주 김은희 김이택 김재민
김점규 김점영 김정옥 김정환 김종완 김수완 김주홍 김지영
김천일 김현정 김현준 김현해 김형우 김호용 김효식 김효영
김희수 김희숙 남기한 남선대 남숙희 노기원 노명자 노병덕
노숙애 도재훈 류승형 류애라 류양아 문영란 문종완 민남식
박경숙 박나은 박상해 박서곤 박선미 박순재 박승부 박승철
박재석 박정의 박종주 박지영 박창수 박형재 박혜경 박혜숙
박효진 배기덕 배윤지 백광현 백운수 변시문 최안나 서승욱
서승환 서영자 서원용 서은정 석숙희 성병호 성연시 성화자
손윤경 손종식 송금이 송병기 송수복 친구진 신승인 신영민
신운봉 신은진 신준설 심영숙 안성현 안영태 양동근 양봉금
양승엽 양신석 양항열 양호권 양화국 엄경희 엄성욱 엄갑훈
오영미 오희수 우제성 우창렬 위재현 유경국 유경근 유금숙
유명환 유병규 유성재 유재구 윤도석 윤종렬 윤화식 이건림
이건상 이경자 이경채 이경화 이경희 이광선 이금숙 이금호
이기현 이대희 이동선 이동세 이득희 이무수 이미란 이미지
이삼주 이상룡 이세원 이순화 이신호 이옥분 이용복 이윤복
이윤정 이윤호 이은일 이임건 이임순 이장열 이재영 이재용
이재원 이재호 이정민 이정옥 이정희 이준석 이준영 이지영
이진아 이철원 이혜정 이환용 임순애 임승재 임용덕 임인학
임일선 임철제 장명숙 장우영 장임순 장지영 장진숙 장태성
전근향 전상민 전성훈 전채림 정 란 정남희 정두환 정성민
정숙희 정승호 정영이 정용식 정원규 정윤정 정은애 정종학
정진연 정찬중 정찬현 정창대 정태용 정태성 정희정 조경숙
조대용 조영현 조옥련 조원열 조웅철 조은영 조현영 조훈래
주정삼 지치안 진혜숙 채상환 최가진 최경남 최동인 최민희
최병석 최서윤 최선애 최숙자 최승근 최옥희 최용욱 최임정
최지향 최진옥 최혜순 최해진 편광수 하차순 하해숙 한동이
한만섭 한미애 한수남 한영이 한호민 허 현 허수봉 허순이
현명호 홍해숙 홍혜순 익 명

기업 및 단체 후원

고은산부인과(김양희) 김재연한의원 김철현정형외과 바른눈안과 바르게살기운동광주동구협의회 이마트단체지원
(주)오케이트레이딩 (주)코밴 (주)유카로오토모빌 (주)명성이앤씨 평화장터 천사재가복지센터(이미자)
삼겹이네(박은경) 카톨릭설비회(양호권) 해강의원 해피빈 후원협의회 후원회미사봉헌금 환경공단남부사업소 익명

결연후원

공태섭 김명석 김가는 김민지 김상욱 김순정 김영순 김중현 김현정 박상현 박초롱 서우영 서원용 신은진 심정국 양희국
엄경호 엄상윤 영성학교 이기욱 이선희 이정민 이주영 최원웅 최혜원 표해정 (주)한국소방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김영순)

지정후원

김석주(김민경 김민혜) 최임정 (주)니오어학원 (주)동성무역 (주)동하 (주)파라다이스글로벌

물품후원

강원순 고로고로케(김미영) 공정민 김 송 김정심 김석주(김민경, 김민혜) 김영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손우진
솔 잎 박동기 부산장애인시설연합회 박현희 박창수한의원 부산여대제과제빵과 오프베이커리 오렌지북스(이진근)
(주)그레몸에프앤비 질러라노래방 평화지킴이봉사단 플러스원(이승우) 커피케이프 한국마트 한마음약국 익 명

2/4분기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수입		사용	
기부금	금액	항목	금액
이월금	107,235,352	의료비	1,856,120
지정후원금	12,112,000	사무비	19,418,690
비지정후원금	21,447,604	사업비	2,587,214
결연후원금	450,000	재산조성비	3,928,800
계	141,244,956		27,790,824

2014년 2차 추가경정 예산서 총괄표

(단위 : 천원)

구분		2014년 예산액	구성비	2차추경 예산액	구성비	증감
세 입	합 계	4,150,000,000	100.00%	4,150,000,000	100.00%	0
	보조금수입	3,609,521,810	86.98%	3,609,521,810	86.98%	0
	후원금수입	340,000,000	8.19%	340,000,000	8.19%	0
	차 입 금	300,000	0.01%	300,000	0.01%	0
	전 입 금	30,000,000	0.72%	30,000,000	0.72%	0
	이 월 금	137,573,621	3.32%	137,573,621	3.32%	0
	잡 수 입	32,604,569	0.79%	32,604,569	0.79%	0
세 출	합 계	4,150,000,000	100.00%	4,150,000,000	100.00%	0
	사 무 비	1,338,579,520	32.25%	1,338,579,520	32.25%	0
	재산조성비	2,489,240,000	59.98%	2,489,240,000	59.98%	0
	사 업 비	279,368,000	6.73%	279,368,000	6.73%	0
	잡 지 출	312,480	0.01%	312,480	0.01%	0
	예 비 비	42,500,000	1.02%	42,500,000	1.02%	0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전화 부탁드립니다.

또한, 편집과정에서 이름이 빠지신 분이 계시면 양해를 구하며 꼭 전화 주세요.

(☎622-1652, 626-5766 이혜정)

사랑을 나누면

행복은 배가 됩니다.



후원 안내

일반후원 이용자의 생활과 서비스, 시설운영에 쓰이는 비용을 자유롭게 후원

결연후원 특정 이용자와 결연하여 후원

물품후원 과일, 쌀, 간식류(빵, 떡, 유제품 등), 디펜드 기저귀(소중형, 대형), 하gis 기저귀(특대형-남녀공용), 하gis 물티슈, 휴지, 어린이 칫솔, 바디워시, 샴푸 등

지정후원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지원, 성프란치스코의 집 재건축 공사비 지원

사랑을 나눠 주시려면

(예금주 ▶ 성프란치스코의 집)

SC제일은행 507-10-014294 국민은행 556601-01-233237 부산은행 036-01-033700-8

우리은행 1005-201-769468 농협 936-01-105492 결연후원 이용자 개인계좌

모금함, 해피빈 (<http://happylog.naver.com/franlove.do>) 후원참여도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24조, 소득세법 3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기부자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해 드립니다. (담당자 ▶ 이혜정 ☎622-1652 · 626-5766)



발행일 2014년 7월 21일(월) (제49호)
발행처 성프란치스코의 집
발행인 임태호
편집인 이혜정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66번길 51(대연동)
 (남구 대연3동 390번지)
전화 622-1652 · 626-5766
팩스 622-1625
홈페이지 www.franciscohome.or.kr
해피빈 <http://happylog.naver.com/franlove.do>
이메일 fran1652@hanmail.net
인쇄 커뮤니케이션 文

